

“전남 동부권, 물류·관광·신산업 거점 중점 육성”

김영록 지사, 동부청사 1주년 기념행사 미래 비전 밝혀 투자유치 등 도정발전 기여자 시상·미래의료 주제 포럼

전남도는 2일 동부청사에서 김영록 지사와 동부지역본부 소속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 동부권을 현대평양 물류·관광·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사는 동부청사 개청과 동부권 미래 비전이 담긴 홍보 영상 공유, 동부청사 개청 후 1년 간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 문화예술, 환경산림, 여운사건 등 5개 분야에서 동부권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자 8명(공무원 3명·민간인 5명)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의 역량과 강점을 살려 현대평양권 물류·관광·신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부권의 더 큰 비상을 위해서는 영호남 상생 화합과 공동번영의 중심역할을 강화해 남해안 남부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해야 한다”며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에게 동부권 대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새롭게 마련한 전남 브랜드(BI) 'OK NOW JEONNAM'의 의미가 '이제 전남시대'라는 뜻과 함께 '전남과 함께 새로운 기회'(NOW, New Opportunity With)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모든 도민이 'OK' 하고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직원들도 동부권 주민들께서 'OK' 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부대 행사인 포럼에서는 ‘명의들의 스승, 그들과 ‘메타의료가 온다’ 책의 저자이면서 EBS 명의 프로그램 고관절 분야에 출연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 과 권순용 교수가 ‘AI-스마트병원’이 열거는 미래 의료’ 주제로 특강했다.



2일 오후 전남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동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포럼에는 순천삼산중학교, 순천승평중학교 등에서 미래 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동부권 지역민이 예상보다 많이 참여해 포럼 행사장 400여 전 좌석을 가득 메웠다.

포럼에 참석한 순천의 한 학생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의대 비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받아 너무 만족스러웠다”며 “동부권 청소년의 액티비티한 댄스 공연 등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동부청사에서 청소년이 관심 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동부청사는 동부권 도민 행정 편의를 위해 2005년 순천시에서 동부출장소로 출발해 2018년 동부지역본부(1국 6개 부서)로 개편됐으나 늘어나는 기업 투자유치, 문화신산업 확대 등 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5개 국 14개 부서의 현재 체제를 갖췄다. /김재정 기자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오늘 개막

시청 시민홀서 14일까지 건축상 등 우수 작품 전시

광주시가 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함께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한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등 광주지역 건축단체 3곳의 연합체다.

광주시와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바른 이해·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 문화의 대중화, 건축전문가들 정보 교류·화합의 축제 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제를 마련했다.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건축도시 산책: 걷고 싶은 거리·가로경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는 광주시에 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의 조성 계획에 맞춰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로 문화·복지·여가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의 의미가 반영됐다.

문화제 기간에는 광주건축사회의 ‘제2회 광주시건축상’, 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의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광주·전남건축가회의 ‘우수건축가 작품전’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특히 “2024년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을 선정하고 시민 대상 그림그리기 세대대회 수상작, 사진공모전 수상작, 국내외 우수 건축가 등 다양한 작품과 모형을 전시한다.

또 미래의 도시 건축 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광주·전남 건축 전공학생들의 ‘교내 작품전 우수 작품’을 전시하고, ‘전국 건축문화상 우수 작품’도 선보인다.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을 무료로 상담하는 건축민원 상담과 지난 6월 광주만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광주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도 전시한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자치구·환경공단, 추석 ‘시가지 청결 대책’ 추진

광주시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구, 광주환경공단과 함께 ‘시가지 청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시설과 청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민간단체, 학생 등 1천800여명이 참여하는 시가지 대청소를 이날부터 실시하고 생활 폐기물 수거 계획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자치구별 환경관

리원 특별 근무를 편성, 14일부터 16일까지 정상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수거(15일은 동·남구 미수거)한다. 추석 당일인 17일과 18일은 수거하지 않는다.

광주환경공단은 자치구 반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상근무조를 편성, 생활 폐기물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내년 성공 개최 ‘뽐업’ 이벤트

매달 다양한 SNS 경품 행사·홍보전 나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2일 “2025년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 이달부터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2025년 9월부터 2개월간 목포·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사전에 알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달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기획되며 참여 방법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공식 누리소통망에 공지한다.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수목 만의 특별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달 이벤트는 초성퀴즈로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이벤트 외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

오택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비엔날레 소식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목 관련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는 전통 예술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道, 中企 시설자금 융자지원 확대

창고업·화물 취급업도 하반기 신청 가능

전남도는 2일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올해 상반기까지도 신청을 받았지만 하반기

에도 접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당초 신청 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으나 기업 편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처리 과정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원으로 구성됐다. 8년간 5~20억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을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했거나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을 통해 가능하다.(문의: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31~4) /양시원 기자

www.kyongbuk.com

제11회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공모부문

- 시부문(3편 필수) - 자유분량, 5편 가능
- 수필부문(3편 필수) - 200자 원고지 15장 내외(PC 한글문서(아래한글)로 작성) (컴퓨터 작성 글자크기 11P, 행간 160%, A4용지 2장 내외 분량)
- 단편소설부문 - 1편(2편 가능) - 200자 원고지 80장 내외(PC 한글문서(아래한글)로 작성) (컴퓨터 작성 글자크기 11P, 행간 160%, A4용지 10장 내외 분량)

응모자격

- 국내외 거주자(기성문인 포함)

응모요령

- 응모작은 국내외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동일한 원고를 다른 매체에 중복 투고 및 발표하여 나타 표절한 경우와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당선 취소함.
- 반드시 신청서에 실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약력, 작품명 기재
- 작품 원고에는 제목 외에 개인정보를 기재 금지(이름, 연락처 등)
- 수상작의 저작권은 5년간 주최 측에 귀속됨.
- 시상 내역과 입상자 수는 작품 접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출품접수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마감 이후 작품은 받지 않음.
- 당선작은 취소할 수 없음.

접수방법

- 이메일 : 경북일보(www.kyongbuk.com) 접수 → 제11회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클러하여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응모파일과 신청서 첨부하여 발송 (munhak@kyongbuk.com)
- 우 편 : (우41256)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1 경북일보청송객주문학대전 담당자 앞
- 문 의 : 경북일보 대구본부 053)745-1122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4년 11월 초 예정 (경북일보 지면 및 홈페이지)
- 시 상 : 수상자 총 41명 (30,700,000원)

구분	금액(원)	명	구분	금액(원)	명
대상	10,000,000	1	장려상	400,000	5
금상	2,000,000	3	시, 수필	200,000	15
은상	700,000	6	공로상	500,000	1
동상	500,000	9	작품상	500,000	1

※특별상인 각 부문 최우수 작품에 유예 경우 신청하지 않음.

▶ 청송객주문학 학술포럼 및 시상식(행투어) : 2024년 11월 15일(금) 14:00 ~

주최 청송군 경북일보 주관 경북일보 후원 경상북도-한국문인협회-대구문인협회-경북문인협회